

'07년 양돈산업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 '07년 양돈산업을 위해 노력한 주요 국회의원 **홍 문 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



대표적인 축산시군인 홍성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축산농가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선량.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농정, 특히 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특히 07년도에는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대책 토론회 개최, 농지법 개정 등 각종 축산관련 정책 제도 개선과 함께 가축분뇨 처리자금 확대, 축산 현대화 자금 확대 등을 위해 큰 공헌을 했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세
- 해양배출 전면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07. 10. 8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
- '08년 가축 분뇨처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가축분뇨 해양배출 의무 성분분석 조정
- 농지법 개정, 도축세 폐지 등 각종 제도 개선

▣ '07년 양돈산업을 위해 노력한 주요 국회의원 **권 오 을** 의원(한나라당, 경북 안동)



현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장으로서 “국내 농업분야 사수를 위해 농업분야의 빅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의정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선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돼지고기 식당 원산지 표시제가 포함된 ‘식품위생법’ 개정 입법 발의 및 공청회 개최, 해양배출 전면 중단 대책 마련 토론회 참여, 농지법 개정 노력 등 모든 양돈분야의 법률제정, 제도개선에 항상 앞장서 축산업 발전에 귀감이 되고 있다.

- 식품 위생법 입법 발의 -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도입 및 적용 음식점 확대
- 식품 위생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07. 6. 14, 경북 안동 청소년 수련관)
- 농지법 개정, 도축세 폐지 등 각종 제도 개선



▣ '07년 양돈산업을 위해 노력한 주요 국회의원 김 춘 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부안)



양돈, 한우가 많은 고창, 부안지역 국회의원으로 식품위생법 개정, 기반시설 부담금 환수 등 국민건강과 양돈농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다.

특히 06년에는 '축사 및 창고 등 농립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07년에는 양돈인들의 숙원이었던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양돈농가의 숙원이었던 식품위생법 개정을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번에 통과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은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식품 위생법 입법 발의 -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도입 및 적용 음식점 확대
-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발의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농가의 환수 추진(기각)

▣ '07년 양돈산업을 위해 노력한 주요 국회의원 강 기 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기갑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등을 역임한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비례 대표로 진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 양돈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한미, 한EU FTA 반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원으로써, FTA 협상 반대와 농업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고, 농민들의 FTA 반대 집회에서 항상 참여하고 국회에서도 FTA 반대의 필요성을 앞장 서 주장해 온 농민들과 한 목소리로 투쟁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대표적 국회의원이다.

- 한미, 한EU FTA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 식품 위생법 입법 발의 -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도입 및 적용 음식점 확대 **양돈**